



메리 크리스마스!

김 두 심

학습목표

-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안다.
-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 기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

준비물

- 그림책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글·그림 미야니시 타츠야, 이선희 옮김, 시공주니어, 2002년)
- 만들기 재료 : A4 용지, A4 색지(빨간색, 초록색), 색종이, 가위, 풀, 사인펜, 양면테이프, 셀로판테이프, 실 또는 리본 끈, 스테이플러, 자, 크리스마스 스티커

들어가는 말

12월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 시기를 살아야 하고, 몸은 아이들과 함께할 성탄제 준비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12월에는 성탄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을 지내다 보면, 그날의 진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과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과 나누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12월에 한 주는 시간을 내어 성탄에 대한 교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저학년의 경우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교리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성탄의 참 의미

를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이들과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라는 그림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중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는 성탄의 의미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시작 **기도** 참 좋으신 하느님, 사랑하는 아드님을 저희에게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리 시간에 성탄에 대해 잘 배워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도입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즐겁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린 친구는 없나요? 선생님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병원에 다니며, 혹시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못 보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더 반갑네요.

선생님은 추위를 많이 타고, 감기에 잘 걸려서 겨울이 오는 것이 썩 반가운 것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생각하면 해마다 겨울이 무척 기다려져요. 우리 친구들은 겨울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왜 좋아하나요? 친구들의 말처럼 흰 눈도 볼 수 있고, 썰매나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서인가요? 아마도 이렇게 신나는 겨울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이 겨울이 더욱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처럼 겨울을 좋아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동물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 보세요.”

전개 1. 수업의 이해를 돕는 그림책 이야기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책 내용 소개 : 크리스마스이브에 아기 돼지 열두 마리가 트리와 화환을 꾸미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 신나는 신나는 크리스마스 / 우리들 마음은 두근두근 / 상냥한 아들이 가득가득 / 신기한 일이 생길 거예요 / 우리 우리 크리스마스 ♪

그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트리와 화환을 망가뜨리고 돼지들을 잡아먹으려 한다. 그런데 돼지들을 잡아 옆구리에 끼고 가던 늑대

는 트리에 걸려 넘어져 온몸을 다치게 되고 돼지들은 무사히 풀려난다. 그러나 아기 돼지들은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늑대가 다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으로 돌봐 준다. 이렇게 아기 돼지들의 보살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늑대는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겠다면서 으르렁댄다. 하지만 입에 감긴 봉대 때문에 그 소리가 ‘우우’ 로밖에 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기 돼지들은 늑대가 자신들에게 사과하며 치료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기 돼지들은 늑대를 위해 빨간 장갑을 선물하며 빨리 나으라고 말한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잠에서 깬 늑대는 선물을 보고 아기 돼지들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늑대는 화환과 트리를 아기 돼지들 집 앞에 예쁘게 장식해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한 뒤 떠난다.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마지막 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늑대는 아기 돼지 열두 마리의 상냥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늑대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신기한 일이 생긴 거죠. 사랑은 신기한 일을 이루어 냅니다. 이 사랑이 시작된 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 을 위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 주고받기

- 내용 확인
 - 아기 돼지를 잡아가던 늑대는 왜 넘어졌을까요?
 - 다친 늑대를 보고 아기 돼지들은 어떻게 했나요?
 - 아기 돼지들은 늑대가 ‘우우’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 추론
 - 아기 돼지들이 다친 늑대를 그냥 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늑대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앞으로 늑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 생활 적용
 - 아기 돼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느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 라 지으라고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모든 사람들은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옴으로 떠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잠 잘 곳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마

구간에서 머물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뵈고 선물을 드렸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며,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을 닮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해요. 아기 돼지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늑대를 치료해 주고, 용서해 주며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말예요.”

2. 만들기

크리스마스트리 입체 카드 만들기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줄 예쁜 입체 카드를 만들어 봐요.)

준비물

A4 용지, A4 색지(빨간색, 초록색), 색종이, 가위, 풀, 사인펜, 양면테이프, 크리스마스 스티커

만드는 방법(카드와 트리 도안은 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① 흰 색 A4 용지에는 카드 도안을, 초록색 A4 용지에는 트리 도안을 인쇄한다.
- ② 빨간색 A4 용지에 카드 도안을 인쇄한 흰 색 A4 용지를 오려 붙인다.
- ③ 카드 속지(흰 색 A4 용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인쇄한 초록색 A4 용지를 오려 붙인다.
- ④ 색종이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이용하여 트리를 예쁘게 꾸민다.



크리스마스 모빌 만들기

(크리스마스 모빌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

색종이, 셀로판테이프, 실 또는 리본 끈, 스테이플러, 가위, 자

만드는 방법

- ①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어 사진처럼 가위로 자른다.
- ② 잘린 종이를 셀로판테이프를 사용하여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마주 붙인다.
- ③ ②의 완성품을 6개 만든 후, 스테이플러를 이용해 합친다.
- ④ 실이나 리본 끈을 달아 모빌을 완성한다.





정리 “오늘은 성탄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하느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랑의 선물이세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이웃 친구들과 함께 나누다면 아기 예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마침 기도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김두심_엘리사벳
 독서교육 전문가. 서울대학교 도림동 성당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5년 동안, 지구 월례교육 강사로 1년간 봉사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